

참전복 치패 연간 150만 미 생산...매출 30억 고소득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여수에서 전복으로 수십 억대 매출을 내는 어업인이 있다. 최동익(50·사진) 대표는 돌산 금복마을 해안가에서 '바다수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연 15억 원 규모의 어린 전복(치패)을 생산하고 직접 유통에 나서면서 30억 원의 매출도 올리고 있다.

최 대표의 주종목은 연간 150만 미를 생산하는 참전복이다. 적절한 수온과 함께 철 따라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라는 전복은 육질이 다르고 오도독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여수 정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 사용해서 식감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초기에는 전복 성패 양식만을 전담했지만 현재는 치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복 양식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최 대표는 과감히 할로를 바꿨다. 자연적 조건으로 폐사 가능성이 큰 전복의 특성상 어업의 성패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년 전 친척의 권유로 전복 양식을 공부한 것이 최 대표에게 전환점이 됐다.

고향인 해남인 최 대표는 처음에 전복 양식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쉽게 뛰어들기에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밤에는 이론을 익히고 낮에는 공부한 것을 실습하고 복습하는 '주중야독'의 나날

양식장 차광막 씌워 맞춤형 참전복 개량 주력 여수 '바다수산' 최동익 대표

은 2년간 이어졌다. 그는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하며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렸던 것은 아니다. 양식을 시작한 첫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성들여 키운 전복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어업인 후계자 경영자금 3000만 원을 받아 양식장을 운영했지만 첫해 매출은 1억 원도 넘지 못했다.

최 대표는 "양식 여가가 망하는 주된 이유는 어패류는 크기만 하면 된다는 '성장 위주'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초기의 실패를 돌아봤다. 객지 설움도 있었다. 공부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최 대표의 '악마리' 근성이 한몫했다. 최 대표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된다"는 철칙을 지켜왔다.

최 대표는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참전복 개량에 힘을 쏟았다. 전복 양식장에 차광막을 설치해 일사광선을 차단하는 등 양식장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전복 양식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후온난화와 어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라면서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품질 좋은 전복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척 권유로 시작했지만 첫해 실패 어장환경 바꿔 폐사를 낮추고 경비 절감 15년만에 양식장 3500평·직원 8명 1년된 종묘 매입 성패로 육성 작업도 여수 전복협회장 맡아 어민 소득 향상 참전복 복원 냉동종자 연구 노력

최 대표의 이 같은 노력은 경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전복의 육질을 좋게 하고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했더니 폐사율이 저절로 낮아졌다. 한해 6억~7억 원이던 경비는 5억 원 미만으로 절감됐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100평이었던 양식장은 3500평이 됐고 어느덧 직원은 8명으로 불어났다.

최 대표는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는 어민이 1년여 동안 키운 종묘를 매입해 성패로 키워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 그가 거래하는 지역은 여수 뿐만 아니라 땅끝 해남과 완도, 신안, 진도, 고흥 등 다양하다. 최 대표와 거래하는 남해안 지역 어민은



100명에 이른다. 최 대표는 어민들과 전국에서 인정받는 전복 종묘를 키워내는데 공감을 형성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어민들은 종묘를 제값받고 팔 수 있고, 최 대표가 일궈낸 유통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일정한 수입원을 마련하게 됐다. 최 대표 역시 고품질 종묘를 확보하면서 지역 어민과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었다.

최 대표는 "좋은 종묘가 자라는 천혜의 해역이 있다면 남해안 어디든지 찾아간다"며 "전복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어민이 응당한 보수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여수시 전복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남도연합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어민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신생 전복 양식 어가에 전하며 기술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여수지역 전복 어민 600여 명이 가입한 협회를 이끌면서 어가가 무겁지만 최 대표는 "어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대표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수심 년 뒤에도 참전복을 생산해 복원해낼 수 있는 냉동종자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대학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어민이 손쉽게 품질 좋은 전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사원 감사장



광주북부경찰(서장 임광문)은 최근 광주은행 임동지점에서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임태희(가운데) 사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4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석산장학재단, 석산고 동문 자녀에 장학금 8100만원

광주 석산고총동문회 선·후배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해 4년동안 313명의 학생에게 모두 3억1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석산장학재단은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JS 웨딩컨벤션에서 표경식 장학재단 이사장과 김기섭 총동문회장, 박장수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김윤탁 석산고 교장, 강기정 전의원, 유재선 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동문 선후배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수여식에서는 초·중·고교·대학교 동문자녀 8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100만원을 전달했다. 표경식 석산장학재단 이사장은 "고교 총동문회가 주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는 사례는 석산 총동문회가 지역에선 최초이며 재단설립을 위한 '1인 1구좌'가 운동이 그 모태가 되었다"며 "장학생 여러분은 오늘을 계기로 삼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를 심는 인재로 성장해줄 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용선 석산학원 이사장은 "사회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꿈을 이루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선행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동시에 학교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석산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 장학위원과 동문들의 뜻을 모아 2억원에 달하는 장학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313명의 학생에게 3억142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을 위한 '1인 1구좌'가 운동이 그 모태가 되었다"며 "장학생 여러분은 오늘을 계기로 삼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를 심는 인재로 성장해줄 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용선 석산학원 이사장은 "사회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꿈을 이루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선행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동시에 학교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석산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 장학위원과 동문들의 뜻을 모아 2억원에 달하는 장학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313명의 학생에게 3억142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자매결연 마을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영업본부장 김귀남)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분량동 감동마을을 방문해 아로니아 수확을 위한 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 <사진>

농협 광주영업본부와 감동마을은 지난해 7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식을 체결한 뒤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영업본부 직원들은 틈틈이 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제조작업, 농산물 수확 등을 함께하며 정을 나눴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기업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농협이 활발하게 전개하는 운동이다. 김귀남 영업본부장은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가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강동완 조선대 총장 방일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일문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조선대와 교류협약을 맺은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총장은 구마모토 대학, 리즈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 와세다 대학 등을 방문한다. /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소비자교육 지도자대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남도지부(회장 이송사)는 5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숙한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여성지도자'라는 주제로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정필기기자 bung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김우성(전남도 농업박물관장·전 광주일보 논설실장)·정욱자(담양중 교육복지사)씨 장남 종남(취대생 QA팀)군 임병태(휴먼테크 대표)·최순이씨 장녀 지혜(연구원)양=9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관천동 라페스타 2층 엘루체움.
- ▲강길원(전 대보엔지니어링 대표)·임선희 씨 장남 성용(서울 동작경찰서 경위)군 김덕호·배은희 씨 장녀 숙 양=10일(일)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더 처플 옛 청담 3층 커티지홀.
- ▲이영철(백영정법무사사무소)·김경숙 씨 아들 동현(한솔테크놀로지사업부)군 김상석·김준옥 씨 딸 유정 양=17일(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교외교수회관 무궁화홀. 피로연=8일(금) 오후 6시 삼영웨딩홀 4층 라벤더홀.

동창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공회

관 062-224-1800.

종친회

-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재광 회원 모임=5일(화) 오후 6시 맏집 한겨레 김재관 010-6455-6296.

알림

- ▲월가정암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

- 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 ▲광주북구정신건강지원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는 분 061-373-8865.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

-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명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문의 010-3609-8117.
- ▲정충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풍수지리학을 올바르게 아는 길. 무료 공개강좌.

- 9월4일 오후 7시. 문의 010-3640-8277.
-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

- 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 | | |
|---|---|--|---|
|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 | | |
| 301호 故김보일 님(남/81세) 子/子婦: 김영기/최미숙, 삼기/박연숙, 용태/이미영 女/婿: 김순영/이성훈, 희영/김영수 *발 인: 9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 402호 故이순자 님(여/65세) 子/子婦: 윤한기/김화영 女/婿: 윤정숙/김민희 *발 인: 9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 101호 故홍기성 님(남/63세) 子/子婦: 홍기성/김정미, 홍준호/박연선 女/婿: 홍현아/박종호 *발 인: 9월 6일 *장 지: 영락공원 | 102호 故장순희 님(여/89세) 子/子婦: 김도원/박민여, 수영/최영희 女: 김순희 *발 인: 9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
|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 | | |